

Power Interview

# 한국전력공사 허엽 본부장



## 허엽

- 1953년 제주 출생
- 1976년 한양대 전기공학과
- 1983년 동국대 경영대학원(석사)
- 2006년 한전 비서실장
- 2007년 한전 제주지사장
- 2009년 한전 서울지역본부장, 한전 배전운영처장
- 2010년 한전 건설본부장(現)

“33년간 전기산업계에 몸 담아 온 전기인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 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소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허엽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KEPCO 비전 달성의 주역이자 첨병역할을 자임한 건설 본부의 의지가 읽혀졌다. 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중심의 혁신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층 활기찬 건설 본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친환경, 민원문제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노력 선진화는 물론, 50년 한전 건설의 노하우에 최첨단 신기술·신공법을 효율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송배전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KEPCO를 글로벌 탑의 반열에 끌어 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 역시 거듭 밝혔다.

## 세계최고 송배전기술력 토대...Global Top KEPCO 도약대 역할 수행

### 친환경 건설 및 원가절감 성과창출 지속 목표

### 29% 민원 감소 등...지난해 준공목표 최초 100% 달성

#### 건설 본부의 Profit Center 기능 전망 및 비전

건설본부의 주된 기능은 전력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송배전망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설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해에는 1,50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와 함께 개발한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등 원가절감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설 원가를 송변전 및 배전분야에서만 2,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연송전, 직류송전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송능력을 향상시킨 Profit 기반의 장기 송배전망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적의 전력망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비전은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건설본부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꿈을 『Global Top in T&D Technology』라는 Vision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첨병의 역할을 ‘세계 최고의 송배전기술력’으로 무장한 건설본부가 달성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전달성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KEPCO가 최후의 강자로 우뚝 서는 날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 건설 본부의 특·장점 및 본부장님 운영 방침

건설 본부는 지난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적기에 전력설비 건설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최초로 준공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원가를 18% 절감하는 의미 있는 실적도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건설 본부의 장점은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설비계획, 설비건설, 기자재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과 종합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을 뛰어 넘어 해외사업까지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KEPCO Way 내재화를 통한 회사 Vision 달성에 건설 본부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중심의 혁신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력 있는 명품 건설본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올해 건설 본부의 주요 역점사업

외부 환경과 전력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2024년까지 유연송전, 직류송전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송능력을 향상시킨 Profit 기반의 장기 송배전망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수송 능력을 향상시킨 최적의 전력망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건설사업 2년 연속 100% 적기 준공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업무추진, 민원대응 선진화, 객관적인 민원 해결에 더욱 진력할 예정입니다. 건설 분야의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건설과 원가절감도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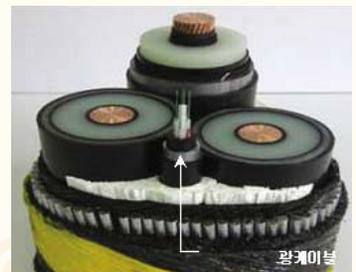
이와 함께, 배전선로 접지시설 및 내뢰기준 재정립, 전주를 활용한 지중화 신공법 현장적용, 대규모 택지지구 4MW급 배전스테이션 및 대용량 지중저압배전방식 개발 등 고신뢰 배전계통망을 경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HVDC 핵심기술 국산화, 송배전자동화, Smart Grid, 초전도기술 업그레이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상용화와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송배전 EPC 해외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외건설팀, HVDC팀 신설 배경 및 기대효과 전망

전력 수요성장률이 포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경영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설비 활용을 극대화 하고 50여 년간 쌓아온 건설노하우를 해외사업에 적용하여 CASH COW를 만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올해 신설된 해외건설팀은 해외사업본부에서 수주한 해외 송변전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조직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변전소 현대화 EPC 사업'을 비롯하여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EPC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탄, 남아공, 캐나다 등에서도



다수의 EPC 사업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PC 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사 공모절차로 120여명의 인력을 구성하였으며, 관련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 송배전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HVDC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VDC 국산화 T/F팀을 2009년 10월에 발족시켰습니다. 올해는 임시조직을 HVDC팀으로 상시 조직화하여 'HVDC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내 전력기술 업그레이드와 해외 사업 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의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법 제시

건설본부의 최대 현안 사항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오는 2012년 4월까지 준공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90km, 첩탑 161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현재 밀양시, 창녕군, 기장군 지역의 주민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실련, 국회, 국토해양부, 주민대표, 학계, KEPC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EPCO는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적극 참여와 마을별 지역 지원 사업을 협의할 계획이며, 보상제도 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공사재개와 특별공정 대책을 마련하여 송전선로가 적기에 완료, 정상적으로 전력을 수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민원문제 등에 대한 건설본부의 대응전략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서 보았듯이 발전설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의 기본은 주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환경 설비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본부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친환경 절연 개폐장치를 개발·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 친화형 첩탑과 콤팩트 기기개발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적 공감이 확산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비건설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선제적 민원 대응과 갈등관리의 노력으로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집단민원을 일정부분 감소시켰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원의 강도가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 전력설비를 건설한다는 일관된 목표를 갖추고 주민, 지자체, NGO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노력 적극 전개 및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 본부의 신성장동력 분야

과거 외국에 의존하던 건설분야의 기술과 노하우가 상당부분 국산으로 개발됨으로써 이제는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올해 신설된 해외건설팀을 중심으로 해외 송변전 EPC사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건설 본부에서 대표적인 신성장동력 분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초전도 기술입니다. 한전은 정부 및 국내 제작사와 협력하여 2011년 이천변전소에 22.9kV급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세계최초의 80kV급 DC초전도케이블 개발(2013년), 세계최고 수준의 154kV급 초전도케이블을 제주 금악 실증단지에 설치(2014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본부는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 도래할 수 있는 초전도케이블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HVDC(직류송전)시스템의 경우, 반도체, 전력전자, 건설 등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가 높아 전력산업분야 핵심 전략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현재 HVDC 기술자립과 국산화를 위해 민간 3사와 협동으로 80kV 60MW HVDC 실증단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수 해외제작사가 주도하는 해외시장에 빠른 시일 내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전기인에 대한 당부

저는 전기산업계의 후배들을 만나면, “꿈꾸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KEPCO 건설본부의 슬로건도 ‘Dream, Challenge, Create’로, 2020년까지 Global Top T&D Technology를 달성하자는 비전을 건설본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핵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기인들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며, 세계최고 등극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와 후배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전력산업의 미래를 꿈꾸며, 전력산업의 힘찬 재도약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KEA